

**타고난 야구센스 박찬호**



**최고의 강건 박준태**



**파이어 블러 한승혁**



# 이들 있어 그나마 웃는다

가을잔치는 없지만 미래는 있다.

10월1일 재개되는 프로야구. 8위 KIA에게는 미래를 찾는 시간이다. 눈길을 끄는 신예 선수들이 있다. 가능성의 내야수 박찬호, 강건 외야수 박준태, 총알투의 투수 한승혁이 그 주인공이다.

◇박찬호=KIA 내야에서 주목할 선수는 고졸 루키 박찬호(19)다. 2군에서 '살짜구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정도로 마른 체격에 파워가 부족한 어린 선수지만 코칭 스태프는 박찬호의 '야구 센스'를 주목한다. 공을 쫓고 치는 감각이 타고났다는 평가다. 글러브에서 공을 빼내는 속도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게 한다.

엔트리 확대로 1군에 올라온 박찬호는 8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다. 아직은 제대로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부족했다. 박찬호는 "수비가 자신 있는데 반도 못한 것 같다. 1군에서 공을 받아보니 그동안 봤던 것과 달리 공이 훨씬 빠르기도 하고 처음엔 무섭기도 했다. 그래도 첫날 실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느끼고 마음을 다 잡았다"고 말했다.

박찬호가 꼽는 자신의 장점은 '생각하는 야구'다.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이다.

박찬호는 "생각하는 야구를 하려고 한다. 미리 다음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편이다. 큰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이 필요할 것 같다. 야간경기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수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타석에 들어가면 변화구가 안 보인다. 경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준태=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총

**내년이 더 기대되는 KIA 선수들**

■ 박찬호

고졸 루키 "생각하는 야구 하겠다"

■ 박준태

강한 송구만큼 타격도 보여줘야

■ 한승혁

'강속구 군단' 제보 이을 기대

알 송구다. 외야수 박준태(23)의 손을 떠난 공은 거침없이 내야로 날아든다. 어깨가 약한 KIA 외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대졸 루키다.

타율 0.262, 볼넷(8개)보다는 삼진(18개)이 훨씬 많아 거친 타격이지만 상황에 따른 타격과 집중력으로 롯데전에서 손아섭의 끝내기 실책을 부르기도 했다. 박준태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역시 수비다.

박준태는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못 가게 하거나 잡아내기도 하는 부분, 송구에 자신이 있다. 대학 때는 중견수로 뛰었는데 프로 와서 우익수로도 많이 나서면서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수비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

준 박준태. 이제는 타석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박준태는 "기술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해결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침착함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주어진 타석에서 끝까지 공을 보고 차분하게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승혁=KIA는 한 때 '강속구 군단'으로 통했다. 벌써 고졸 4년차이지만 1993년생, 이제 겨우 22살인 한승혁이 와해 위기의 '강속구 군단'의 미래를 얘기한다.

첫 선발승을 거두는 등 화려한 봄을 보낸 한승혁은 고질적인 제구 난조 탓에 2군에서 선발수업을 받으며 여름을 보냈다. 그리고 9월 복귀 후 세 경기에서 희망을 보였다. 5.1이닝 1피안타 무실점 행진. 볼넷은 두 개로 묶었다.

한승혁은 "여유를 찾고 온 것 같다. 준비 잘했는데 생각만큼 안 돼서 마음이 급했다. 1군에 와서 한참 등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코치님과 준비를 잘했다"고 말했다.

한승혁을 상징하는 것은 150km는 가볍게 넘기는 강속구다. '제구'가 약점이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한승혁은 "역시 내 장점은 강속구다. 앞으로도 힘으로 승부를 할 것이다. 제구가 고민이다. 릴리스 포인트가 뒤에 있어서 기복이 심하다.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와서 던지려고 한다. 손목을 쥐는 부분도 좋을 때는 공이 빠르게 잘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차이가 심하다. 코치님들과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를 통해 성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통쾌한 역전극...광주 FC 28R '최고의 팀'

### 파비오 MVP·이종민 '베스트 11' 뽑혀

광주 FC가 28라운드 최고의 팀이 됐다.

지난 21일 강원 FC와의 원정에서 4-2의 대역전극을 펼친 광주 FC가 28라운드 베스트 팀이 됐다. 후반전 4득점의 추격전이 펼쳐졌던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을 쏘아올린 공격수 파비오는 28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파비오는 선정위원회로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2골을 휘둘러지며 팀의 2연승과 3위를 이끌어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수비수 이종민도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비오

이종민

두 골을 도운 이종민은 "오른쪽 측면을 지배했다.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무결점 경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는 1위 대전에 이어 강원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챙기며 3위로 올라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슈틸리케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임명

## "FIFA 랭킹부터 끌어 올리겠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앞둔 올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다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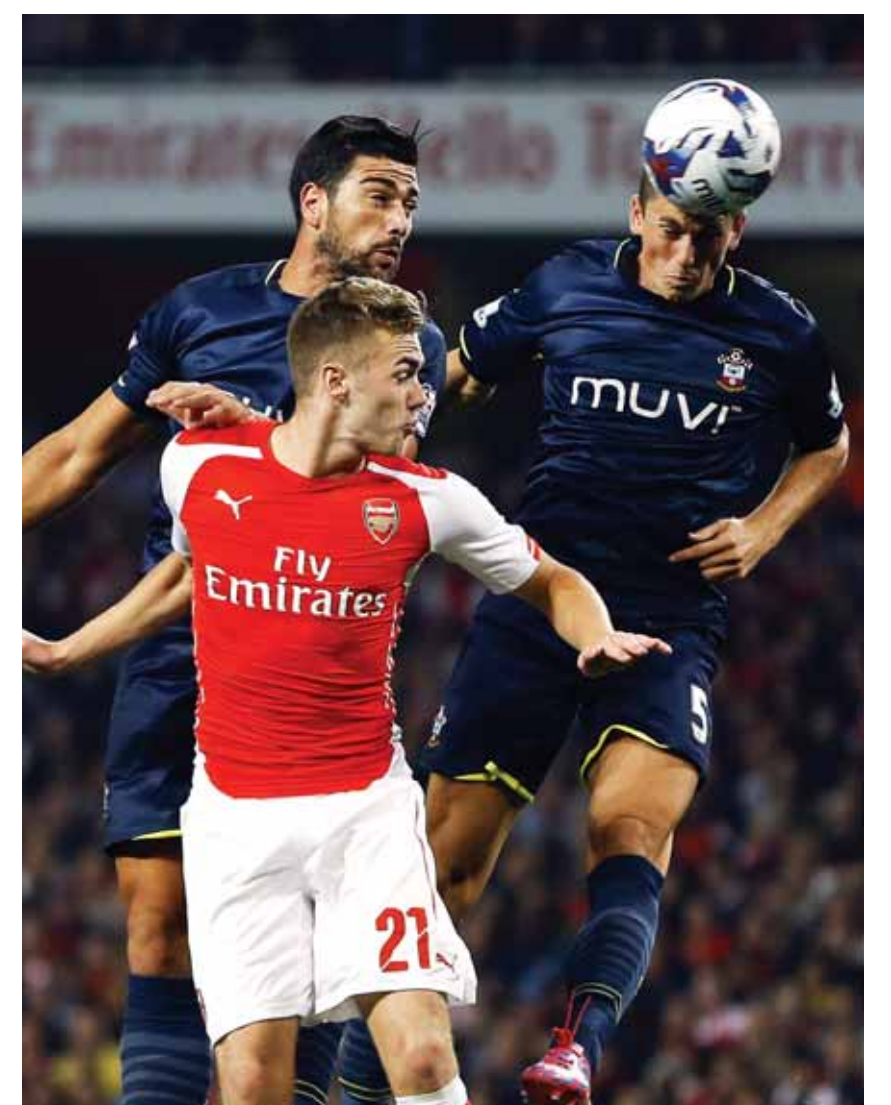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조금씩 점수를 쌓아 FIFA 랭킹을 올려 상위권으로 가는 것이다. 첫 경기인 파라과이 전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낙점된 슈틸리케 감독은 8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등을 지켜보고 스페인으로 떠났다가 이날 복귀,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다음 달 10일 파라과이, 14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치

른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한 슈틸리케 감독은 "아우구스투르크의 감독과 친분이 있어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다른

곳은 시간이 부족해 가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25일 한국과 홍콩의 아시아간예 16강전을 관전하고 주말에는 K리그 경기를 보며 팀 구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중볼 다툰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칼럼 챔버스가 24일 런던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리그컵 32강전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투고 있다. 아스널이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 효천고 출신 경성대 이민우 계약금 2억4000만원

### KIA 타이거즈 내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 완료

'아기 호랑이' 이민우(경성대·사진)가 계약금 2억 4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끝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2015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1차 지명으로 고희영 유니폼을 입게 된 효천고 출신

의 우완 이민우는 계약금 2억4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경기고 내야수 황대인은 계약금 1억6000만원, 2라운드에서 선택한 문경찬(투수·건국대)은 1억1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종석(투수·세한대)은 9000만원, 이준영(투수·중앙대)과 황인준(투수·한양대)은 각각 8000만원과 7000만원을 받는다.

연세대 투수 김명찬(6000만원), 아탑고 투수 박정우(5000만원), 배명고 포수 박정우(4000만원), 흥익대 외야수 이정현(3000만원), 동국대 외야수 김호령(3000만원)도 입단 계약을 마쳤다. 연봉은 모두 270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